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위기의 전남 축산농가·우시장

“축사문 다 닫게 생겼어” 한숨만

한우값 80만원 폭락해도 겨우 팔아
“사료값은 폭등... 손해보고 키울 판”

열(63·장성군 장성읍)씨는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해 고급육 육성이나 친환경 비료를 먹인 한우를 키우라고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처사다”며 “사료비만 작년 대비 50%가량 오른 상태여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축산농가는 백이면 백 다 망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우 농가 김재익(강진군 칠량면)씨는 “손해까지 보면서 한우를 사육할 수는 없고, 축사문을 닫아야 할 날도 멀지 않은 듯 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0일 강진군 칠량면 한우 농가에서 한 농민이 애지중지 길러온 소들을 바라보며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손님 안모(37)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안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P씨와 노래방 주인을 음약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입건했다. P씨는 경찰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경우 손님 접대행위로 처벌받을 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며 “돈을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나섰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노래방 밭 들인 탈북 여성 결국...
성폭행하려던 손님 신고 본인도 접대행위로 입건
새 삶을 찾아 한국을 찾은 탈북 여성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P모(여·34)씨는 북한을 탈출, 지난해 1월23일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다.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온 P씨는 일정기간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광주로 향했다. 광주에 새동지를 틈 P씨는 돈을 벌어 북한에 사는 가족들을 데려오기로 마음 먹고 구직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일자리 구하기란 생각했던 만큼 쉽지 않았다. 생계마저 곤란해진 P씨는 결국 올해 초 광주시 북구 모 노래방에 밭을 들여 놓았다. 도우미 P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모 노래방에서

초여름 날씨 불구 AI 확산
인체 감염 우려 ‘비상’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AI의 인체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하는 AI는 북방계 형태로 인체에 직접 감염된 사례가 없었다. 반면 태국이나 홍콩 등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남방계 AI는 지난 10여년간 AI 감염 사망자가 300여명에 달해 21세기 최고의 재앙으로 취급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AI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마냥 안심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우선 전복을 시작으로 전남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AI가 동절기를 지나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데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난안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기온대가 동남아와 유사해지는 것도 문제다. 한국에서 발생한 AI가 남방계는 아니지만 AI의 변종이 늘고 있어 감염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체감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질병관리본부는 21일 전국 시도청의 보건과장을 불러 회의를 연다. AI가 만에 하나 사람에게 전염되는 이른바 AI 인체감염 사태에 대비해 예방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이 자리에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참석해 AI 인체감염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AI 발생지역이 광범위하고 살처분에 참여하는 인원도 6천7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AI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방대책 강화를 지시할 계획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경찰 살처분 현장 투입 ‘곤혹’

전남경찰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에 첫 번째 투입을 앞두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일 전남청에 따르면 경찰은 AI 확산에 따라 방역활동 등을 적극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우선 전남도 내 방역초소 19곳에 6명씩 총 110여명의 전·의경을 우선 지원하고, 대규모 살처분이 예상되는 현장 투입을 고심 끝에 결정했다. 하지만, 살처분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은 그동안 재해·재난현장에 전·의경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왔었다. 그러나 동물전염병 살처분 현장 동원은 북부규정이 없어 전·의경 투입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었다. 특히 재해 복구와 달리 동물 살처분은 20세 이하인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의 신중한 판단 아래 현장에 투입하도록 돼있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도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전·의경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역초소에만 투입하고 살처분 현장에는 희망자에 한해 경찰관들을 보내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접수 결과 신청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자, 경찰은 청장 지시로 각 부서별로 3~5명씩, 100명의 직원을 차출해 살처분 현장에 투입하는 ‘교육지력’을 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재난·재해현장과 다르게 동물 전염병 살처분 현장 병력 투입은 많은 걸림돌이 있어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services like individual mortgages and apartment balconies.

국비·교비 수입직원 횡령 학장 구속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우현)은 20일 학교 교비와 국비 지원금 수십억여원을 횡령한 강진 S대 학장 이모(51)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학 이사장과 학장을 겸임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항공분야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돼 매년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국비 지원금과 학교 교비 등 50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S대학은 지난 2006년 11월 교육부의 감사를 받았으며,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이씨의 횡령의혹을 적발해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수감중인 前 의붓아버지 집 털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의붓아버지 집에서 물품을 훔친 철부지 아들이 출소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20일 최근 어머니와 이혼한 의붓아버지 집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훔친 박모(20)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의붓아버지 Y(39)씨의 집 안방에 있던 휴대전화와 냉장고, TV 등 시가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들고 나온 뒤 광주의 한 중고센터에 5만 원을 받고 이를 내다 팔았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광주에 한 PC 게임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Y씨가 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는데, 경찰에서 “집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Joitreal (주) Joitreal,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